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9. 11.(수) 배포 2024. 9. 11.(수)

국립세종수목원, 추석 맞이 관람객 이벤트 '추석, 추억 속으로' 운영

- 전통놀이 체험, 팥없는 뽕기, 보름달에 소원쓰기 등 이벤트 운영 -

국립세종수목원(세종특별자치시)은 추석 당일인 17일을 제외하고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무료 개방한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온실이 있는 국립세종수목원(65ha)은 25개 전시원에 3,759종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추석 연휴 기간 '추석, 추억 속으로'라는 주제로 ▲전통놀이 체험(투호, 굴렁쇠, 윷놀이, 비석치기 등) ▲팥 없는 뽕기(1일 400명 한정) ▲보름달에 소원쓰기(1일 1,200명 한정) 등 이벤트를 준비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추석에 방문하는 관람객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 운영을 통해 입장권 교환권, 가든샵 할인권 등을 제공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입장마감은 오후 5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www.sjn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추석 맞이 무료개장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 수목원 관람과 이벤트 참여를 통해 가족과 함께 옛 추억을 떠올리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수목원서비스본부 고객서비스실	책임자	실 장	구분광 (044-251-0172)
		담당자	주 임	서향유 (044-251-0175)



1. 2023년 추석에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한 어린이 관람객이 축제마당에서 딱지치기 놀이를 하고 있다.



2. 2023년 추석에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한 관람객이 축제마당에서 굴렁쇠를 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